

헝가리, 주요 산업현황 및 생산동향

<표 1> 동유럽 4개국의 주요 산업현황 지표 비교
(2006년 기준)

(단위: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산업생산/GDP				
농림수산업	11.0	3.4	2.7	9.1
광공업	25.1	31.5	32.6	34.9
서비스업	63.9	65.1	64.7	56.0
산업생산증가율	11.3	10.2	9.7	11.4

자료: EIU, Country Report 및 Country Profile 2008.

1. 산업구조 및 생산동향

- 내수시장이 비교적 소규모이며, 산업기반은 무역 및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서부유럽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국 중에서 매우 개방적인 경제권역임.
- 1990년대 중반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정책에 힘입어, FDI는 생산 현대화 및 서부유럽 지역에 대한 무역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통신, 금융, 가전 및 공공사업 분야의 주요 지분(equity)은 민간기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생산비중이 GDP 대비 80%로 중부유럽 최고 수준을 나타냄.
- 체제전환 초기단계에서 경기침체를 경험한 헝가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경기회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외국인투자가 낮은 노동비용을 고려한 지역(중국, 루마니아 등)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헝가리는 EU의 부품생산기지 및 조립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생산구조로의 점진적인 이전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1997-2000년 연평균 산업생산증가율은 10%대를 상회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해외수요의 침체와 EU 경제의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산업생산은 저조한 양상을 나타냈음. 그러나 2003년 말 이후 수출 증대로 산업생산증가율은 6-7%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산업생산 관련지표는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체제전환 과정에서 헝가리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였음. 2001-02년 제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개인소비 증가에 힘입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표 2> 제조업 생산증가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평균	3.5	7.0	8.5	7.6	11.0
기계(설비)	32.4	3.0	3.7	5.9	20.2
전기(광학장비)	5.2	16.5	23.2	16.1	13.0
수송(설비)	1.2	14.4	7.2	14.0	25.8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7, October 2006.

- 2006년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수송(설비), 기계(설비) 등의 생산증대에 힘입어 평균 16%를 기록함. 유로존 지역경제의 수요위축과 주변 체제전환국가의 경제성장 부진 등의 부정적인 대외변수가 2006-07년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분석됨.
- 2007년에는 내수둔화에 따른 산업생산증가율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정도로 제조업의 수출호조가 산업생산증가율(8.2%) 상승을 견인하였으나, 2008년 들어 유로존의 경기둔화로 헝가리의 산업생산 증가 및 경제성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외국인투자 제조업 현황
 - 자동차산업 제조부문은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대상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Audi Hungaria(Volkswagen)은 1994년 이후 최대 수출(엔진공급) 기업으로서 오토바이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Magyar Suzuki(일본)는 승용차 생산의 90% 이상(2005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Opel Hungary(General Motors)는 승용차에서 자동차부품 생산체제로 전환함.

- 헝가리는 유럽지역 내 EU, 미국 및 일본의 자동차(부품) 제조기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중부유럽과 더불어 Prague-Bratislava-Gyor의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우리나라 한국타이어 헝가리법인도 2007년 증반 영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생산규모를 1천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2. 전자·통신 산업현황

- 헝가리는 1990년대 이후 전자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부상하여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5년 전자산업 프로젝트 기준으로 유럽지역의 제4위 FDI 유치국임. 전자산업은 헝가리 산업생산의 26%, 수출의 42%, 산업 종사자의 1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며, EU 전자제품 생산의 4.5%(100억 달러의 생산규모)에 달함.
- 정보통신산업도 발달하여 전자산업에서 컴퓨터업종의 생산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전제품도 전통적으로 강세를 나타내 2006년 기준으로 연간 생산규모는 TV 300만 대, VCR 500만 대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자동차(전자)부품 산업도 대형자동차 및 버스 생산업체(Audi, Suzuki, GM, NABI, Raba)에 공급되는 부품생산에 Continental Temic, Delphi 및 Bosch 등의 업체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자산업 진출업체로는 Philips, 삼성, Elcoteq, Sanyo, Diebold, Bosch, GE 등인데, Philips는 LCD 생산설비를 확충하였으며, GE는 조명시설 공장을 프랑스에서 헝가리로 이전하였음. 2006년 Bosch는 투자확대로 7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유발하였고, Diebold도 ATM 생산설비를 프랑스에서 헝가리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짐.
- Sanyo는 태양전지 모듈 생산설비 확충과 에어컨 생산공장 설립을 Dorog에 추진하였고, Ecoteq도 6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휴대폰 생산설비를 확충함.
- 삼성전자는 1억 달러를 투자하여 LCD 생산설비를 Laszfenyszaru에 확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1억 달러를 플라즈마 모듈 생산설비 건설에 투자하여 2007년 3월 생산을 개시함으로써 2010년에는 1,000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헝가리 정보통신(ICT)산업은 중국 등 신흥투자시장과의 경쟁격화로 다소 위

축됨. 2002년 말 Szekesfehervar 지역에 소재한 IBM(미) 및 Kenwood Electronics(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조공장이 폐쇄됨. Philips(네덜란드)는 모니터 시장가격 급락 및 마진 추가축소 등으로 음극선관(CRT) 모니터 제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음.

- 한편, 헝가리는 휴대폰 핸드셋 제조센터로서 부상하고 있는데, Nokia(핀란드) Komarom를 비롯하여 Elcoteq(핀란드) 및 Flextronics(싱가포르) 등의 업체가 현지공장을 설립함. 특히, Nokia는 부다페스트에 핀란드 이외 지역으로서는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설치하였으며, Ericsson(스웨덴)은 제2세대, 제3세대 휴대폰 네트워크 구축과 시스템 통합을 위해 서비스 개발센터를 설치함.
- 주요 통신기반 통계현황(1990년대 초, 2006년 말)
 - 휴대폰 보급비율: 9% → 33.4%, 전화 보급비율: 40%미만 → 99.1%
- 헝가리는 1990년대 초 유럽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통신 네트워크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통신 인프라 투자확대로 중부유럽 지역에서 가장 선진화된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최대 통신업체는 Magyar Telekom(Deutsche Telekom)로 헝가리 통신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유선전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휴대폰(자회사 T-Mobile) 및 인터넷 시장도 주도하는 있는 상황임.
- 휴대폰 시장은 2001-03년 T-Mobile, Pannon GSM(노르웨이 Telenor) 및 Vodafone International(영)에 의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유선전화 시장이 2000년 초 400만 회선에서 2006년에는 340만 회선으로 위축됨.
- 헝가리 휴대폰 업체들은 2006년 기준으로 제3세대 범용이동통신서비스(UMTS) 시스템을 유럽지역에서는 비교적 늦게 도입하였으며, 무선응용통신 규약(WAP), 범용전파서비스(GPRS) 등의 데이터 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인터넷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기간 중에 비교적 고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요금으로 개인 인터넷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가계 컴퓨터 구매를 위한 정부보조금 투입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개인용 컴퓨터(PC) 보급률이 상승함.

- PC 보급비율: 45%, 인터넷 접속비율: 22%(사용자: 400만 명 추정)
- 인터넷 가입자: 976,792명(2005) → 1,292,066명(200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조사팀장 조 양 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